

2023
고2 연매
천재

고2 언어와 매체 천재 | 4(1)(1) 문장의 짜임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다 빈출 유형 1

겹문장에 관해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겹문장의 종류인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 중 안은문장이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되었으므로, 안긴문장의 종류와 안긴문장이 안은문장에서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지까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을 섞고 묻는 문제도 있었으며 이어진문장에 관해서는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과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을 구분하거나, 각 이어진문장의 성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1.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밥을 먹던 건우가 채은이에게 다가왔다.

- ① 관형절을 안은문장이다.
- ② 안긴문장이 또 하나의 문장을 안고 있다.
- ③ 안은문장과 안긴문장의 주어는 일치한다.
- ④ 안은문장의 문장 성분만 따지면 '주어+부사어+서술어'의 구조이다.
- ⑤ 안긴문장의 주성분을 생략 없이 따지면 '주어+목적어+서술어'의 구조이다.

2. 다음 중 안긴문장의 종류가 <보기>의 안긴문장과 다른 것은?

<보기>

형사는 그 남자가 범인임을 알아차렸다.

- ① 수학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
- ② 지금은 집에 가기에 늦은 시간이다.
- ③ 나는 네가 합격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 ④ 그곳은 그림이 예쁘게 전시되어 있다.
- ⑤ 나는 네 행동이 옳았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3. <보기>의 ㄱ, ㄴ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보기>

- ㄱ. 엄마는 내가 의사가 되기를 바라신다.
ㄴ. 우리는 그가 기부를 했음을 그제야 깨달았다.

- ① ㄱ과 ㄴ 모두 부사어가 있다.
- ② ㄱ과 ㄴ의 안긴문장 속에는 모두 목적어가 있다.
- ③ ㄱ은 명사절이 안겨 있고, ㄴ은 부사절이 안겨 있다.
- ④ ㄱ에는 서술절이 안겨 있고, ㄴ은 관형절이 안겨 있다.
- ⑤ ㄱ의 안긴문장 속에는 보어가 있고, ㄴ의 안긴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있다.

4. <보기>의 ㉠~㉤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된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다른 문장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안긴문장이라고 하고, 이 문장을 포함한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안긴문장은 ㉠ 명사절, ㉡ 관형절, ㉢ 부사절, ㉣ 인용절, ㉤ 서술절로 나뉜다.

- ① ㉠: 친구들은 내가 빨리 밥 먹기를 기다리고 있다.
- ② ㉡: 열심히 공부하는 동생에게 사탕을 주었다.
- ③ ㉢: 수연이는 말도 없이 유학을 가 버렸다.
- ④ ㉣: 우리는 그가 유학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 ⑤ ㉤: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수가 마음이 넓다.

5.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그가 이 사건의 범인임이 밝혀졌다.
 ㄴ. 언니가 빵을 먹은 사실이 드러났다.
 ㄷ. 오빠가 동생이 가게에서 산 빵을 먹었다.
 ㄹ. 동생이 목이 쉬게 소리를 질렀다.
 ㅁ. 누나가 집에 가기에 바쁘다.
 ㅂ. 형이 밥을 먹기가 어렵다.

- ① ㄱ과 ㄴ은 안긴문장의 종류도 다르고 안은문장에서의 문장 성분도 다르다.
- ② ㄴ과 ㄷ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에서의 문장 성분은 같지만 생략 성분의 유무에 따라 그 성격이 나뉠 수 있다.
- ③ ㄷ과 달리 ㅁ의 안긴문장의 주어는 안은문장의 주어와 같다.
- ④ ㄹ과 ㅁ의 안긴문장은 종류는 다르나 안은문장에서의 문장 성분은 같다.
- ⑤ ㅁ과 ㅂ의 안긴문장은 종류가 같으며 안은문장에서의 문장 성분도 같다.

6.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안긴문장은 문장에서 기능에 따라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로 나누어진다. 명사절은 ‘-(으)ㄴ’, ‘-기’, 관형절은 ‘-(으)ㄴ’, ‘-는’, 부사절은 ‘-이’, ‘-게’, ‘-도록’, 인용절은 ‘고’, ‘라고’ 등이 붙어서 만들어지며 서술절은 절 표지가 따로 없이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용례	설명
①	누나는 <u>마음이 넓다</u> .	‘누나는’이라는 주어를 서술하는 서술절이다.
②	<u>소녀가 범인임이</u> 드러났다.	명사형 어미 ‘-(으)ㄴ’이 붙어 만들어진 명사절이다.

③	그는 <u>바람이 불기</u> 기다렸다.	‘기다렸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절이다.
④	저는 <u>그를 만난</u> 기억이 없습니다.	관형사형 어미 ‘-ㄴ’을 사용하여 ‘기억’을 수식하는 관형절이다.
⑤	엄마는 놀란 목소리로 <u>무슨 일이나</u> 고 물으셨다.	엄마의 말을 간접적으로 인용하여 쓴 인용절이다.

7. <보기>의 ㄱ~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그녀는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
 ㄴ. 그가 시장에서 산 배추는 값이 비싸다.
 ㄷ. 내가 빌린 자전거는 내 친구의 것이다.
 ㄹ. 피곤해하던 동생이 엄마가 모르게 잔다.
 ㅁ. 파수꾼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숙였음이 드러났다.

- ① ㄱ과 ㅁ은 안긴 절의 종류가 모두 동일하다.
- ② ㄴ은 서술어의 기능을, ㄹ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절이 있다.
- ③ ㄴ과 ㄷ에는 목적어가 생략된 절이 있다.
- ④ ㄱ~ㅁ은 모두 두 개의 안긴문장이 있다.
- ⑤ ㄱ~ㅁ은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8. <보기>의 ㉠, ㉡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면 홑문장, 두 번 이상 나타나면 겹문장이라고 한다. 겹문장은 홑문장과 홑문장이 이어진 이어진문장과, 전체 문장이 홑문장을 안고 있는 안은문장으로 나뉜다. 이어진문장은 ㉠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했다.
㉡: 바다에 가든지 산에 가든지 맘대로 해라.
- ② ㉠: 봉선화의 색깔은 붉거나 희다.
㉡: 성규가 국어는 잘하지만 수학은 못한다.
- ③ ㉠: 성규를 만나려고 꽃단장을 했다.
㉡: 내가 공부하는데 수지가 들어왔다.
- ④ ㉠: 수지가 갑자기 나의 손을 잡았다.
㉡: 나는 사과와 배를 좋아한다.
- ⑤ ㉠: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 가을이 오면 곡식이 익는다.

9. <보기 1>에 따라 <보기 2>의 문장들을 분류하는 탐구 활동을 하였다. ㉠~㉤와 ㉧~㉩를 짝지은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이어진문장은 문장이 이어진 방식에 따라 대등하게 이어진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나뉜다.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 주로 나열, 대조, 선택의 제한된 의미를 가지는 데 반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 앞의 절은 뒤의 절에 대해 ㉠ **동시 사건 표현**, ㉡ **선행 사건 표현**, ㉢ **배경·상황 설명**, ㉣ **조건·가정**, ㉤ **이유·원인** 등 더욱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보기 2>

- ㉧. 이렇게 비가 심하게 오는데 차를 몰고 나가도 될까?
- ㉨. 할머니께서 음식을 다 차려 놓자 애들이 일어났다.
- ㉩. 선생님은 새벽까지 출제하느라고 지각을 했다.
- ㉪. 엄마는 음악을 들으면서 요리를 합니다.
- ㉫.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 주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10. <보기>를 참고하여 주어진 조건에 따라 연결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어진 문장은 절이 이어지는 방법에 따라 둘로 나뉜다.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나열, 대조’ 등의 대등한 의미 관계로 해석되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배경, 원인, 조건, 양보, 의도’ 등의 종속적인 의미 관계로 해석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 있다.

	조건	조건에 맞는 문장
①	대등적 - 나열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
②	대등적 - 대조	눈이 내리지만 날씨가 춥지는 않다.
③	종속적 - 배경	산에 가는데 우연히 친구를 만났다.
④	종속적 - 양보	믿음이 없으면 우정도 없다.
⑤	종속적 - 의도	여행을 떠나려고 가방을 새로 샀다.

11. <보기>는 문장의 짜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다. ㉧~㉩의 설명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 두 홑문장이 결합된 이어진문장인 경우
- ㉨. 체언의 뜻을 제한하는 안긴문장을 사용한 경우
- ㉩. 안은문장의 주어와 안긴문장의 주어가 같은 경우
-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
- ㉫. 대등적으로 문장을 연결하는 어미 ‘-고’를 사용한 경우.

- ① ㉧의 예문: 오늘 돌이와 득이는 산길에서 마주쳤다.
- ② ㉨의 예문: 영수는 꽃이 핀 사실을 몰랐다.

- ③ ㄷ의 예문: 오빠가 동생이 가게에서 산 빵을 먹었다.
- ④ ㄹ의 예문: 지금은 우리가 학교에 가기에 아직 이르다.
- ⑤ ㄴ의 예문: 손을 씻고 밥을 먹어라.

12. <보기>의 ㄱ~ㄴ의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ㄱ. 수지는 아무런 말도 없이 자리를 떠났다.
- ㄴ. 어제 동물원에서 본 코끼리는 코가 길었다.
- ㄷ. 영수야, 이제 그만 잠을 자거나 목욕을 해라.
- ㄹ. 오늘 비가 오겠다고 한 기상대의 예보가 틀렸다.
- ㄴ.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한 그의 선행이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 ① ㄱ: 겹문장 중 부사절을 안은 문장으로, '아무런 말도 없이'가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ㄴ: 겹문장 중 관형절과 서술절을 안은 문장으로, 서술절의 주어는 '코끼리는'이고 그에 대응하는 서술어는 '길었다'이다.
- ③ ㄷ: 겹문장 중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에 해당하며, 하나의 행동을 선택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④ ㄹ: 겹문장 중 인용절과 관형절을 안은 문장으로 '오늘 비가 오겠다고'라는 부분이 간접 인용절이다.
- ⑤ ㄴ: 겹문장 중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해당하며 앞 문장은 관형절을 안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3. <보기>는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탐구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안은문장: 홑문장을 전체 문장의 한 성분으로 안고 있는 문장
 - ㉠ 언니는 그 아이가 학생임을 알았다.
(언니는 그것을 알다. / 그 아이가 학생이다.)
 - ㉡ 책을 읽던 소이가 도하에게 다가왔다.
(소이가 책을 읽다. / 소이가 도하에게 다가오다.)
- 이어진문장: 둘 이상의 홑문장이 대등하거나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 ㉢ 동생은 과일은 좋아하지만, 채소는 싫어한다.
(동생은 과일을 좋아하다. / 동생은 채소를 싫어하다.)
 - ㉣ 대장이 오면 그들은 출발할 것이다.
그들이 출발하면 대장이 올 것이다.
(대장이 오다. / 그들이 출발하다.)

- ① ㉠과 ㉡을 볼 때, 안긴문장과 안은문장의 주어는 같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군.
- ② ㉠과 ㉡을 볼 때,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거나 체언을 꾸미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군.
- ③ ㉢과 ㉣을 볼 때,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 모두 중복된 내용을 생략할 수 있군.
- ④ ㉢과 ㉣을 볼 때, 이어진문장은 앞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도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군.
- ⑤ ㉢과 ㉣을 볼 때, 이어진문장은 두 문장이 '대조'나 '조건'의 의미 관계로 연결되기도 하는군.

최다 빈출 유형 2

문장 성분을 구분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주성분과 부속 성분을 구분하거나 각 성분을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예시 문장을 성분별로 나누어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주성분	부속 성분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14. <보기>를 참고할 때 ㉠으로만 이루어진 문장은?

<보기>

문장 성분은 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문장 성분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성분인 ㉠ **주성분**,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부속 성분, 다른 문장 성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 성분으로 나뉜다.

- ① 새 집이 깔끔하다.
- ② 이 우산이 너의 것이니?
- ③ 정이는 책만 본다.
- ④ 진욱이는 힘들게 가수가 되었다.
- ⑤ 누나는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

15. <보기>의 ㉠~㉤을 문장 성분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 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 **무진**을 뺨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조용히 잠들고 싶어 하고 조용히 잠든다는 것은 상쾌한 일이기 때문이다. 안개, ㉣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

- 김승옥, 「무진기행」 중에서

16. <보기>를 바탕으로 문장 성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어제 나는 친구에게 편지 받았어.
- ㉡. 영호는 시골의 풍경을 좋아한다.
- ㉢. 그 아이는 연못에 돌을 던졌다.
- ㉣. 우리 반이 승리했음이 분명하다.
- ㉤.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 ① ㉠을 보니 목적어는 조사를 생략해서 쓸 수도 있군.
- ② ㉡을 보니 관형어는 문장 안에서의 이동이 자유롭군.
- ③ ㉢을 보니 어떤 서술어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기도 하는군.
- ④ ㉣을 보니 주어는 한 단어뿐만 아니라 절이 될 수도 있군.
- ⑤ ㉤을 보니 단체를 나타내는 주격 조사 '에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군.

17.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문장 성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 물이 얼음이 되었다.
- ㉡. 원석이는 책을 두 권 샀다.
- ㉢. 가족들이 공원에서 도시락을 먹는다.
- ㉣. 지호는 정인이가 모범생임을 잘 안다.
- ㉤. 빨간 꽃이 작은 화분에 예쁘게 피었다.

- ① ㉠: '얼음이'의 조사를 '으로'로 바꾸어도 문장

성분은 변하지 않는다.

- ② ㄴ: '책을'과 '두 권을'은 모두 '목적어'로 볼 수 있다.
- ③ ㄷ: 문장 성분이 주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 ④ ㄹ: '잘 안다'는 두 개의 어절이 모여 서술어 기능을 하는 '절'이다.
- ⑤ ㅁ: 필수적인 성분을 제외한 부속 성분은 모두 세 번 쓰였다.

18. <보기>의 수업 상황에서 밑줄 친 물음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번 시간에는 문장을 구성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성분인 주성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습니다. 주어는 문장에서 동작 또는 상태나 성질의 주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성분입니다.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을 목적어라고 하고,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중에서 주어를 제외하고 조사 '이/가'가 붙은 것을 보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의 주성분에 대해 알아보까요?

- ㉠ 철수의 동생이 사진을 찍었다.
- ㉡ 언니는 올해 대학생이 되었다.

- ① ㉠의 '찍었다'는 '동생'의 동작을 풀이하는 서술어입니다.
- ② ㉡의 '올해'는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 아닙니다.
- ③ ㉠에는 목적어가 있지만 ㉡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 ④ ㉠에는 주어가 하나, ㉡에는 주어가 둘이 있습니다.
- ⑤ ㉠과 ㉡은 서술어의 자릿수가 같습니다.

19. 윗글을 읽고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ㄱ. 나는 그녀가 실종된 현장을 돌아보며 세밀한 작전을 생각했다.
- ㄴ. 그가 길을 걸어갈 때 숲속에서 두견새가 슬피 울었다.
- ㄷ. 나는 못 들은 척 버스에 올라타서 빈자리에 몸을 던졌다.

- ① ㄱ의 '그녀가 실종된'과 '세밀한'은 뒤의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 ② ㄱ의 '돌아보며', '생각했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③ ㄴ의 '그가 길을 걸어갈'은 '때'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 ④ ㄴ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울었다'는 '두견새가'라는 주어와 '슬피'라는 부사어를 필요로 한다.
- ⑤ ㄷ의 '던졌다'라는 서술어는 주어 '나는'과 부사어 '빈자리에', 목적어 '몸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다 빈출 유형 3

서술어의 자릿수를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서술어의 자릿수의 개념을 바탕으로 예문의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파악해야 하며, 예문에는 필수 문장 성분 중 일부가 생략되어 제시될 수도 있으므로 예문에 전적으로 기대어 서술어의 자릿수를 찾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 밑줄 친 서술어 중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서술어는 그 성격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들의 개수가 다른데, 이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예를 들어 '꽃이 핀다.'에서 '피다'는 주어만을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

고, '그는 노래를 불렀다.'에서 '부르다'는 주어 이외에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 **두 자리 서술어**이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셨다.'의 서술어 '주다'는 주어와 부사어, 목적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 ① 그녀는 파란 옷을 **입었다**.
- ② 운동장에 핀 꽃이 **예쁘다**.
- ③ 왕은 그를 사위로 **삼았다**.
- ④ 민수가 편지 봉투에 우표를 **붙였다**.
- ⑤ 철수는 어제 민규에게 책을 **돌려주었다**.

21. <보기>를 참조하여 '서술어의 자릿수'를 판단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문장 속에서 서술어가 꼭 필요로 하는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성분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필수적 부사어가 있다.

- ① 나는 결국 게임의 유혹에서 벗어났다. → 2자리
- ② 범인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곧바로 붙잡혔다. → 2자리
- ③ 인재들이 우리 회사에 왔다. → 1자리
- ④ 이제는 우리 반 모두가 나를 가엾게 여긴다. → 3자리
- ⑤ 할머니께서 어제 통장에 용돈을 넣어 주셨다. → 3자리

22. <보기>를 참고할 때 서술어의 자릿수가 다른 것은?

<보기>

서술어는 그 성격에 따라서 필요한 문장 성분들의 개수가 다른데 이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주어 하나만 필요한 한 자리 서술어, 주어 이외에 목적어, 부사어, 보어 등이 더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부사어가 필요한 세 자리 서술어가 있다.

- ① 동생은 우리 아버지와 많이 **닮았다**.
- ② 여자아이가 아주 사랑스럽게 **생겼다**.
- ③ 나는 서점에서 봉 감독을 우연히 **만났다**.
- ④ 교정에 활짝 핀 무궁화가 참으로 **예쁘다**.
- ⑤ 유난히 더운 날씨에 얼음이 물이 **되었다**.

23. <보기>를 바탕으로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ㄴ. 준후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
ㄷ. 나이가 드니까 몸이 예전과 다르다.
ㄹ. 낭만을 실은 기차가 선로를 달린다.
ㅁ. 그는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다.
ㅂ. 다희는 부모님과 진학 문제를 의논했다.

- ① ㄱ의 '들린다'는 주어를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 ② ㄴ의 '읽는다'는 ㄹ의 '달린다'와 달리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③ ㄷ의 '다르다'와 ㅂ의 '의논했다'는 모두 문장에서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이다.
- ④ ㅁ의 '삼았다'는 '그녀는 자신의 행운을 당연하게 여겼다.'에서 '여겼다'와 서술어의 자릿수가 같다.
- ⑤ ㅁ과 ㅂ의 서술어는 모두 세 자리 서술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건우가 채은이에게 다가왔다.’라는 안은문장에 안겨 있는 ‘건우가 밥을 먹다.’라는 안긴문장은 홑문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건우가 밥을 먹다.’라는 문장이 ‘건우가 채은이에게 다가왔다.’라는 문장에 관형절로 안겨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안은문장과 안긴문장의 주어는 모두 ‘건우가’이므로 적절하다.
- ④ ‘건우가 채은이에게 다가왔다.’라는 안은문장은 ‘주어+부사어+서술어’의 구조이므로 적절하다.
- ⑤ ‘건우가 밥을 먹다.’라는 안긴문장은 ‘주어+목적어+서술어’의 구조이므로 적절하다.

2. 정답 ④

<보기>는 ‘그 남자가 범인이다.’라는 문장이 명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다. ④는 ‘그림이 예쁘다.’라는 문장이 부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므로 안긴문장의 종류가 <보기>와 다르다.

- ① ‘수학 문제를 풀다.’라는 문장이 명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므로 <보기>와 안긴문장의 종류가 같다.
- ② ‘집에 가다.’라는 문장이 명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므로 <보기>와 안긴문장의 종류가 같다.
- ③ ‘네가 합격하다.’라는 문장이 명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므로 <보기>와 안긴문장의 종류가 같다.
- ⑤ ‘네 행동이 옳았다.’라는 문장이 명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므로 <보기>와 안긴문장의 종류가 같다.

3. 정답 ⑤

ㄱ은 ‘내가 의사가 되다.’라는 문장이 명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며, ‘의사가’는 보어에 해당한다. ㄴ은 ‘그가 기부를 했다.’라는 문장이 명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며, ‘기부를’은 목적어에 해당한다.

- ① ㄴ에는 ‘그제야’라는 부사어가 있지만 ㄱ에는 부사어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ㄴ의 안긴문장인 ‘그가 기부를 했음’에는 ‘기부

를’이라는 목적어가 있지만, ㄱ의 안긴문장인 ‘내가 의사가 되기’에는 목적어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④ ㄱ과 ㄴ은 모두 명사절이 안겨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 정답 ④

④의 문장은 ‘그가 유학(을) 간다.’라는 문장이 ‘-는’이라는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 관형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므로 ㉠(인용절)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 ① ‘내가 빨리 밥(을) 먹다.’라는 문장이 명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므로 적절하다.
- ② ‘동생이 열심히 공부하다.’라는 문장이 관형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므로 적절하다.
- ③ ‘수연이는 말도 없다.’라는 문장이 부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므로 적절하다.
- ⑤ ‘마음이 넓다.’라는 문장이 서술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므로 적절하다.

5. 정답 ⑤

ㄱ, ㄴ은 안긴문장의 종류가 명사절로 같지만, ㄴ은 안긴문장에 조사 ‘에’가 붙어 부사어로, ㄴ은 안긴문장에 조사 ‘가’가 붙어 주어의 기능을 하므로 문장 성분이 같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ㄱ: ‘그가 이 사건의 범인이다.’라는 문장이 명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으로, 명사절은 주어의 기능을 한다.

ㄴ: ‘언니가 빵을 먹었다.’라는 문장이 관형절로 안겨 있는 문장으로, 관형절은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ㄷ: ‘동생이 가게에서 빵을 샀다.’라는 문장이 관형절로 안겨 있는 문장으로, 관형절은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ㄹ: ‘동생이 목이 쉬다.’라는 문장이 부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으로, 부사절은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ㅁ: ‘누나가 집에 가다.’라는 문장이 명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으로,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ㅂ: ‘형이 밥을 먹다.’라는 문장이 명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으로, 명사절은 주어의 기능을 한다.

- ① ㄱ, ㄴ은 안긴문장의 종류와 안긴문장의 문장 성분도 다르므로 적절하다.

- ② ㄴ, ㄷ은 안긴문장의 문장 성분이 관형어로 같으므로 적절하다. 또한 ㄴ의 관형절은 생략된 성분이 없는 동격 관형절이고, ㄷ의 관형절은 '빵을'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므로 생략된 성분의 유무에 따라 그 성격이 나뉜다는 설명도 적절하다.
- ③ ㄷ의 안긴문장의 주어는 '동생이'이고 안은문장의 주어는 '오빠가'이므로 안은문장과 안긴문장의 주어가 다르다. ㄹ의 안긴문장과 안은문장의 주어는 '모두' '누나가'이다. 따라서 ㄷ과 달리 ㄹ의 안긴문장의 주어는 안은문장의 주어와 같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④ ㄴ, ㄹ의 안긴문장의 종류는 다르지만, 문장 성분은 모두 부사어이므로 적절하다.

6. 정답 ③

'그는 바람이 불기 기다렸다.'는 '바람이 불다.'라는 문장이 명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므로 부사절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안긴문장인 '바람이 불기'는 안은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할 뿐(목적격 조사 '를'이 생략됨.) '기다렸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하지 않는다.

- ① '마음이 넓다.'라는 문장이 서술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므로 적절하다.
- ② '소녀가 범인이다.'라는 문장에 명사형 어미 '-(으)ㄴ'이 붙어 명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므로 적절하다.
- ④ '(내가) 그를 만나다.'라는 문장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 관형절로 안겨서 '기억'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무슨 일이냐?"라는 문장이 간접 인용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므로 적절하다.

7. 정답 ④

ㄷ은 안긴문장이 관형절 하나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ㄱ: '따뜻한 봄이 오다.'라는 문장이 명사절로 전체 문장에 안겨 있고, 이 명사절에는 '봄이 따뜻하다.'라는 문장이 관형절로 안겨 있다.

ㄴ: '값이 비싸다.'라는 문장이 서술절로 안겨 있고, '시장에서 배추를 사다.'라는 문장이 관형절로 안겨 있다.

ㄷ: '내가 자전거를 빌리다.'라는 문장이 관형절

로 안겨 있다.

ㄴ: '동생이 피곤해하다.'라는 문장이 관형절로 안겨 있고, '엄마가 모른다.'라는 문장이 부사절로 안겨 있다.

ㄹ: '파수꾼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속였다.'라는 문장이 명사절로 안겨 있고, 이 명사절에는 '사람들이 마을에 산다.'라는 문장이 관형절로 안겨 있다.

- ① ㄱ, ㄹ 모두 명사절과 관형절이 안겨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ㄴ의 '값이 비싸다.'라는 서술절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절이고, ㄴ의 '엄마가 모르게'라는 부사절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절이므로 적절하다.
- ③ ㄴ의 '시장에서 산'이라는 관형절에는 '배추를'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되었고, ㄷ의 '내가 빌린'이라는 관형절에는 '자전거를'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되었으므로 적절하다.
- ⑤ ㄱ은 '봄'을 수식하는 관형절이, ㄴ은 '배추'를 수식하는 관형절이, ㄷ은 '자전거'를 수식하는 관형절이, ㄹ은 '동생'을 수식하는 관형절이, ㄹ은 '사람들'을 수식하는 관형절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8. 정답 ⑤

- ㉠은 나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고'에 의해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다. ㉡은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면'에 의해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다.
- ① ㉠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과 ㉡ 모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과 ㉡ 모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은 홑문장이고, ㉡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9. 정답 ②

'할머니께서 음식을 다 차려 놓았다.'라는 선행 행위를 연결 어미 '-자'를 통해 드러냈으므로 적절하다.

ㄱ: '비가 심하게 오다.'라는 배경을 연결 어미 '-데'를 통해 드러냈으므로 ㉢에 해당한다.

ㄷ: '선생님이 새벽까지 (시험 문제를) 출제했다.'라는 이유를 연결 어미 '-느라고'를 통해 드러냈으므로 ㉠에 해당한다.

ㄹ: '엄마는 음악을 듣는다.'라는 동시 사건을 연결 어미 '-면서'를 통해 드러냈으므로 ㉡에 해당한다.

ㄱ: '일출봉에 해가 뜨다.'라는 조건을 연결 어미 '-거든'을 통해 드러냈으므로 ㉢에 해당한다.

10. 정답 ④

연결 어미 '-으면'은 '양보'가 아닌 '조건'을 나타내므로 적절하지 않다. 양보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에는 '-(으)르지라도'가 있다.

① 연결 어미 '-고'는 나열의 의미를 띠며 대등적 의미 관계를 갖게 하므로 적절하다.

② 연결 어미 '-만'은 대조의 의미를 띠며 대등적 의미 관계를 갖게 하므로 적절하다.

③ 연결 어미 '-는데'는 배경의 의미를 띠며 종속적 의미 관계를 갖게 하므로 적절하다.

⑤ 연결 어미 '-려고'는 의도의 의미를 띠며 종속적 의미 관계를 갖게 하므로 적절하다.

11. 정답 ②

'꽃이 피었다.'라는 문장이 관형절로 안겨서 '사실'이라는 체언의 뜻을 제한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흠문장이므로 ㄱ의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동생이 가게에서 빵을 샀다.'라는 문장이 관형절로 안겨 있는 문장으로, 안은문장의 주어는 '오빠'이고 안긴문장의 주어는 '동생'이므로 ㄷ의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우리가 학교에 가다'라는 문장이 명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으로, 명사절 '우리가 학교에 가다'가 조사 '에'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고 있으므로 ㄹ의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앞의 행동이 뒤에 오는 동작보다 시간상 앞섬을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 '-고'가 쓰였으므로 ㄴ의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12. 정답 ②

ㄴ은 '어제 동물원에서 코끼리를 보았다.'라는 문장이 관형절로 안겨 있고, '코가 길었다.'라는 문장이 서술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다. 그러나 서술절의 주

어는 '코가'이므로 서술절의 주어가 '코끼리는'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수지는 아무런 말도 없다.'라는 문장이 부사절로 안겨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연결 어미 '-거나'를 활용하여 하나의 행동을 선택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므로 적절하다.

④ '오늘 비가 오겠다고 했다.'라는 문장이 관형절로 안겨 있고, 이 관형절에는 '오늘 비가 오겠다.'라는 문장이 인용절로 안겨 있다. 이 중 인용절은 '-고'라는 조사를 통해 간접 인용절로 안겨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연결 어미 '-서'를 통해 앞뒤 문장이 종속적으로 이어져 있고, 이 중 앞 문장은 '그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라는 문장이 관형절로 안겨 있으므로 적절하다.

13. 정답 ④

㉠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을 통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도 의미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을 통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문장의 순서가 바뀌면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어진문장은 앞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도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은 안은문장과 안긴문장의 주어가 각각 '언니는', '아이가'이므로 주어가 다르고, ㉡은 안은문장과 안긴문장의 주어가 '소이가'로 같으므로 적절하다.

② ㉠의 안긴문장인 명사절은 명사처럼 쓰이고 있고, ㉡의 안긴문장인 관형절은 '소이'라는 체언을 꾸미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의 안긴문장인 '책을 읽던'에는 '소이가'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안은문장에 안겼고, ㉠에는 '동생은'이라는 중복되는 주어가 하나 생략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⑤ ㉠은 '대조'의 의미 관계로, ㉡은 '조건'의 의미 관계로 연결되었으므로 적절하다.

14. 정답 ③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③

은 '주어+목적어+서술어'의 구조로, 주성분만 쓰였으므로 적절하다.

- ① '관형어+주어+서술어'의 구조로, 부속 성분인 관형어가 쓰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② '관형어+주어+관형어+서술어'의 구조로, 부속 성분인 관형어가 쓰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④ '주어+부사어+보어+서술어'의 구조로, 부속 성분인 부사어가 쓰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⑤ '주어+관형어+목적어+부사어+서술어'의 구조로, 부속 성분인 관형어와 부사어가 쓰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15. **정답** ②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고,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다.

• 주성분

- ㉠: '안개다'는 서술어이므로 주성분에 해당한다.
- ㉡: '무진을'은 목적어이므로 주성분에 해당한다.
- ㉢: '명산물이'는 보어이므로 주성분에 해당한다.

• 부속 성분

- ㉣: '밖으로'는 '나오면'을 수식하는 부사어이므로 부속 성분에 해당한다.
- ㉤: '무진의'는 '안개'를 수식하는 관형어이므로 부속 성분에 해당한다.

16. **정답** ②

ㄴ에서 관형어는 '시골의'인데, '시골의 영호는 풍경을 좋아한다.', '*영호는 풍경을 시골의 좋아한다.'에서 알 수 있듯이 관형어는 문장 안에서 이동할 경우 의미가 달라지거나 비문이 된다. 따라서 관형어는 문장 안에서의 이동이 자유롭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편지 받았어.'의 편지는 '를'이라는 목적격 조사를 생략하고 쓴 형태이므로 적절하다.
- ③ '던졌다'라는 서술어는 주어와 목적어 외에 '~에'라는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므로 적절하다.
- ④ '우리 반이 승리했다.'라는 문장이 명사절로 안겨 조사 '이'와 결합하여 주어로 쓰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정부에서'의 '에서'는 '정부'라는 단체를 주어로 만들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7. **정답** ②

'책을'과 '두 권을'은 모두 목적어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① ㄱ의 '얼음이'는 보어인데, 이를 '얼음으로'로 바꾸면 부사어가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공원에서'는 부속 성분인 부사어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절'은 주어와 서술어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잘 안다'는 서술어는 있으나 주어가 없으므로 절이라고 할 수 없다.
- ⑤ '관형어+주어+관형어+부사어+부사어+서술어'의 구조로, 부속 성분이 네 번 쓰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8. **정답** ④

㉠의 주어는 '동생이', ㉡의 주어는 '언니는'으로 모두 주어가 한 번 쓰였으므로, ㉢에 주어가 2개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으로, '찍었다'는 주어인 '동생'이 사진을 찍는 동작을 풀이한 서술어이므로 적절하다.
- ② '올해'는 '되었다'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므로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 아니다.
- ③ ㉠에는 목적어 '사진을'이 있고 ㉡에는 없으므로 적절하다.
- ⑤ '찍었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되었다'는 주어와 보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므로 ㉠과 ㉡은 모두 두 자리 서술어이다.

19. **정답** ④

'슬피'라는 부사어는 필수 부사어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울었다'는 주어를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 ① '그녀가 실종된'은 '현장'을 수식하는, '세밀한'은 '작전'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돌아보며'와 '생각했다'는 모두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므로 적절하다.
- ③ '그가 길을 걸어갈'은 '때'를 수식하는 관형절로, 안은문장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